

등장만으로 경계를 허무는 이름이 있다. 단지 호명했을 뿐인데 서로의 표정을 따뜻하게 만든다. ‘신형철’이라는 이름도 그 중 하나다. 처음 만난 사이라도 “신형철의 글을 좋아해요”라고 말하면 금방 마음을 연다. 어색하던 분위기가 단박에 환해진다. 때론 누군가의 글을 읽는다는 사실이 타인의 슬픔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글 이재영 사진 최충식



정확한 사랑을 위해 슬픔을 공부하는

‘타인의 슬픔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의 터널 속 어둠의 일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공부와 아는 것을 모르게 되는 공부인 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공부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공부입니다. 아는 것을 모르게 되는 공부는 스스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공부예요. 안다는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죠. 모를 때는 오히려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알면 호소를 해도 외면합니다. ‘아는데, 다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일러, 지금은 바쁘다고 쉽게 말하죠. 보통의 공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공부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걸 깨는 공부는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부예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우리는 ‘슬픔’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엄청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상처라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 20년 전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안다고 생각해 내뱉었던 무심경한 말들이 잊히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모르니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으로 세상과 소통하십니다. 문학이 슬픔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같은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슬픔이나 고통을 체험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뻔한 대답 같지만 경험에 준하는 간접 경험이 가능한 게 문학입니다. 그 경험으로 슬픔을 이해할 수 있죠. 문학적 서사는 한 사람의 삶을 생생하게 함께 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평론가
신형철





신형철

문학평론가이자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이다.

평론집 『몰락의 에티카』,
영화에세이 『정확한 사랑의
실험』,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출간했고 평론을 엮은 신간을
준비 중이다.

예기치 않았던 재난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요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 문학 작품과 더 가까워져야겠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일상도 달라졌나요?

원래 원래 작업 공간에 틀어박혀 있는 걸 좋아하고 생활 패턴이 단조로워서 개인적인 생활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다만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일을 하는 방식이 여러모로 달라졌죠.

이 시기가 끝난 뒤의 세상이 궁금합니다.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문명사적 통찰을 할 역량은 못되고 일상에서의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 변화 못지 않게 긍정적 변화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이 좀 더 간결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회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걸 보면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일상의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극복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일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이면서 칼럼도 쓰시고 책의 저자이지만 무엇보다 평론가시죠. 평론가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평론가는 어떤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평가를 강조하지만 저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 여겨요. 평가를 할 자격이 해석의 역량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거든요. 등단이나 학위 같은 게 자격 조건인 것이 아니라, 창작자보다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태도와 해석에의 의지가 핵심이죠. 요컨대 평론가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해석자예요. 산파에 비유할 수 있죠. 뱃속의 아이를 밖으로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작품이 품은 가치 있는 인식을 끄집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평론가입니다.

영화 평론을 모은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 보면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영화도 여러 번 본다고 하셨어요.

보일 때까지 봅니다. 안 보이면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써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자주 보려면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작품을 연인에 비유하기도 하죠. 평론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같아야 한다고요. 좋은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있다는 뜻에서요. 존중하는 마음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신뢰 없이는 몰두가 어려워요. 작품을 해석한다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확한 해석과 평론’ 때문인지 신형철 평론가의 비평이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작가와 작품에 신뢰가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평을 할 때 선생님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론 취향이나 입장에 부합하는 작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작품과 함께 엉켜서 고민하면 뭔가 중요한 생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나의 사유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작품을 무척 좋아하고 작품을 통해서만 말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작품으로부터 독립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스스로 작품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공부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이해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비평가적 기질이겠지요.

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창작의 주체가 되길 바라잖아요. 처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부터 비평에 끌리셨는지요?

처음에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설까지 꼼꼼하게 읽었어요. 작품 뒤에 실린 김현 선생님이나 김윤식 선생님의 글을 읽는데 작품만큼 재미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이건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죠. 비평이 창작보다

66

작품을 연인에
비유하기도 하죠.
평론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와 같아야
한다고요.

99

66

‘평온’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평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적한
 풍경이 있는 공간,
 조용히 흐르는
 피아노 선율,
 느릿느릿하게
 지나가는 시간.

99

가치가 덜하다는 열등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평론가는 비평이라는 종류의 글을 쓰는 창작자라고 생각해요.

좋은 글을 보고 그 이상의 글을 쓰려고 노력하시네요. 잘 쓴 글과 좋은 글의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둘을 나누자면 기교와 태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잘 쓴 글은 기술적으로 훌륭한 글이죠. 좋은 글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태도가 전달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글이 아닐까요?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일수록 잘 쓴 글에 대한 강박 때문에 기술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저 또한 기술적인 완벽성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기술적으로 완벽한 글을 읽을 때 감동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태도가 느껴지게 하는 것 역시도 기술의 힘이 아니냐고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요. 진심만으로 진심이 전달되진 않아요. 결국 둘 다 갖춰야 좋은 글이 나오겠네요.

사전에서 한 단어만 남긴다면 어떤 단어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평온’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평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적한 풍경이 있는 공간, 조용히 흐르는 피아노 선율, 느릿느릿하게 지나가는 시간. 그런 이미지들이 스치면 행복까진 아니어도 삶이 언제나 평온하면 좋겠다 싶죠. 불행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는데 그런 때가 바로 평온한 시간이잖아요.

최근 며칠을 즐겁게 한 어떤 텍스트가 있나요? 요즘 주목하는 작품이 있으신지요?

얼마 전 해설을 쓴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이원하 시인의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라는 시집입니다. 2018 신춘문예 등단한 제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인의 시집입니다. 오랜만에 참 반짝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생각하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해설을 썼어요. 또 감정 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젊은 학자인 김신식의 『다소 곤란한 감정』이라는 에세이 글이 정말 좋았습니다. 짧은 글을 내용 있게 쓰는 게 어려운데, 장황하지 않으면서 알맹이가 없는 글이 한 편도 없었어요. 통찰력이 무척 뛰어나더군요. 첫 단행본인데 앞으로 훌륭한 글을 많이 쓸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시간을 즐겁게 해줄 텍스트에 이어 화나게 하는 텍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가 말했다. “진실을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소명의 언어가 있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거짓을 담은 욕망의 언어가 있죠.” 혼란스러운 요즘 안타깝게도 욕망의 언어를 자주 보게 된다고 했다. 슬픔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일부 언론들에서 욕망의 언어를 언어. 앞으로 서로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한다. 소명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함께 평온하기 위해. 그래서 당신은 슬픔을 공부하고 있느냐고. 🌍